

01 교회소식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는 충성스런 성도들에 대한 '2014 우수상 시상식'.

02 생명의 말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애굽의 고센 땅이 열 재앙에서 보호받은 것 같이 오늘날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킴받는다.

03 기획특집

내 마음 들여다보기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성결을 이루는 지름길. 신숙히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마음'을 해부해 본다.

04 간증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주님 품에 돌아와 참 사랑과 평안을 얻은 신침금 성도와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은 콜롬비아 마릭사 베레스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672호 2015년 2월 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성하며 봉사합니다”

우수상 시상식, 교구와 선교회 등 총 34명 수상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로서 2014년 교구 및 선교회, 주일학교 등 교회 각 부서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성, 봉사한 우수상 수상자 전체(사진 가운데).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양희원 집사(농아인선교회), 조용진 집사(차량국), 박정환 장로(우수 지역장, 가운데), 주현 집사(GCN 방송), 리유 집사(우수 구역장, 앞줄 가운데), 황영희 권사(우수 주교사), 오용재 장로(기획실 봉사자), 최문희 권사(영접위원회).

지난 2월 1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 안에서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본이 된 이들을 시상하는 '우수상 시상식'이 있었다. 교구와 선교회, 주교사, 위원회, 봉사대, 상근부서, 봉사자, 지교회에서 총 34명이 수상했다.

교회 부흥의 중심인 교구의 영혼을 잘 갈무리한 우수 지역장에 박정환 장로, 전경숙 권사, 우수 조장에 오미자 집사, 우수 구역장에 김의택, 문춘자, 윤미순, 리유 집사가 상을 받았다. 또한 나이별로 구성된 선교회에서는 우수 선교회 조장에 이세라 집사, 우수 기관장에 이규훈, 남기은 집사, 주현 권사가 수상했고, 우수 주교사에는 황영희 권사가 수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박정환 장로는 “지역 식구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가족 같은 지역 식구들과 함께 하니 더 충만하게 달려올 수 있었고, 매주 남장년 구역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수시로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 공항 영접, 식사, 접대, 수행, 통역 등으로 섬기는 영접위원회, 봉사위원회, 예배국, 무안단물(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안만

민교회 앞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돼 믿음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남)에 관련된 일들을 총괄하는 무안단물관리위원회, 농아인선교회에서 각각 최문희 권사, 이종애 집사, 이혜순 권사, 황명수, 양희원 집사가 수상했다.

최문희 권사는 “해외 손님이 처음 만나는 얼굴이자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공항 영접위원들인 만큼 세계적인 교회의 영접위원답게 더 따뜻하고 선한 향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무안단물터가 위치한 전남 무안군 해제면에서 서울 구로동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15년째 무안단물 수송을 맡고 있는 황명수 집사는 “권능의 무안단물을 운송하는 날이면 항상 목욕제계를 합니다. 왕복 12시간 거리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 나라에 가셔도 봉사하고 싶습니다.”라며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심에 감사해했다. 아울러 봉사대 부문에서는 흥명일 장로, 김영호, 김영국, 차혜경 집사가 수상했다.

한편, 봉사자 부문에서는 기획실과 시설관리국,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본부에서 오용재, 김부삼 장로, 구본권 집사, 조명자 권사가, 지교회에서는 목포만민성결교회 김말

진 권사가 수상했다. 김말진 권사는 9년 전 8개월 된 손자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치료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수년간 ‘사랑의 감장감치’ 누기용 김장 배추를 정성껏 재배해 헌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근 부서 부문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세계 선교 사역을 도와 해외 선교사 및 지교회를 관리하는 해외선교팀과 책자, 신문을 통한 문서선교를 담당하는 편집국,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전 세계에 송출하는 GCN 방송, 성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실과 예배와 행사 시 성도들의 오가는 길의 편의를 돕는 차량국, 장례 및 혼례를 돕고 있는 경조위원회, 교역자실과 만민기도원에서 이현준, 김보은, 주현, 이종현, 조용진, 우광하, 박미숙, 차경식 집사가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뜨겁게 천국을 침노해 갈 것을 다짐했다. 세계를 이루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수상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성도들의 모습도 아름다웠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출 7:1~6)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더 힘들게 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은 당장이 라도 바로가 자신들을 해방시키려니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한 고난이 돌아오자 크게 실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믿음의 수준을 가진 백성을 탓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열 재앙입니다.

처음에는 재앙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니 재앙이 커지다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재앙으로, 모세가 손을 펴니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해 물 속의 고기가 죽고 온 나라 안에 악취가 진동하며 애굽 사람은 식수를 위해 급히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본 바로는 마음을 강박히 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애굽에는 두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천에서 수많은 개구리떼가 올라와 거리마다 가득할 뿐 아니라 방안, 침대 속과 부엌의 음식 그릇 안까지 넘쳐났지요. 마침내 바로는 모세를 불러 개구리 떼를 없애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고난을 모면하자 다시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니 다 이가 됐고 수많은 이가 사람과 생축에게 기어올랐지요. 애굽의 술사들이 이 일을 따라하고자 했지만 땅의 티끌을 생명체인 이로 변하게 하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바로가 고집을 굽히지 않자 이번에는 파리의 재앙이 임합니다. 애굽 전역은 물론 신하들의 집과 바로의 궁중에도 완전히 파리 떼로 뒤덮인 것입니다. 바로는 다시 모세에게 파리 떼를 없애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라 하지만 파리 떼가 사라지자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악질의 재앙과 독종의 재앙이 임해 사람들은 물론 온 애굽의 생축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

다. 그 다음에는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전국의 농사를 다 망치고 집 밖에 있던 짐승이나 사람이 다 죽었지요. 그나마 우박의 재앙에서 남아 있던 작물들도 다음에 임한 메뚜기의 재앙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연달아 임할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재앙이 사라지면 매년 마음을 변개했습니다. 이런 바로의 강박함으로 인해 마침내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삼일 동안 해와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 흑암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열 재앙에 담긴 영적 의미

그러면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에 자세히 설명한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모세를 통해 애굽 전역에 임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까닭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되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 왕 바로를 통해 사람들이 왜 재앙을 만나며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죄악이 가득찬 세상을 의미하므로(계 11:8) 애굽 사람이 당한 재앙은 곧 오늘날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총체적으로 나타냅니다.

먼저 피의 재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식수로 고통받는 것이니 가정이나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성가신 시련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지혜롭지 못하게 신앙생활 함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핍박 받는 경우이지요.

개구리의 재앙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부부간에 화목이 깨어지며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단의 역사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까지 표면화돼 괴로움을 주는 것이지요. 예컨대, 형제나 부부간에 사소한 일이 발단돼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이의 재앙 정도만 해도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즉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 떼의 재앙부터는 그만큼 하나님과 죄의 담이 쌓인 경우이므로 철저한

통회자복이 필요합니다. 파리가 여기저기 다니며 질병을 옮기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쌓은 죄의 담들이 있을 때, 특히 비진리의 말을 통해 범죄한 것이 많으므로 질병이나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또한 악질의 재앙은 속으로 발병하는 큰 질병들을 말하고 독종의 재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으로 더욱 병이 심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터나 일터에 물질의 큰 손상을 입은 사람은 우박의 재앙을 당한 것이요, 이에서 더해 완전히 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때는 메뚜기의 재앙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더 심해지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앞날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있고, 그래도 돌아키지 않으면 장자의 재앙, 곧 사람의 생명까지 끊어지는 재앙을 당하지요.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재앙은 점점 더 커지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재앙을 만난다 해도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재앙이 온 애굽에 임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습니(출 8:22~23). 온 애굽에 파리 떼가 들끓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 떼가 나타나지 않았고, 악질이나 독종 등 다른 재앙들도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성도들 역시 고센 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온 나라에 유행하는 질병이 있을 때도 상관없으며, 혹여 질병에 걸렸다 해도 회개하고 기도받으면 신속히 치료되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간증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총망라한 권능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 일은 육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값없이 종으로 부리며 많은 유익을 보고 있었으며, 모세가 백성을 요구한다고 내어 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하심으로 그의 말을 보장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모세는 애굽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1.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에서 건지시고자 자신을 보내신 것을 알려 주고 그 증거로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떠날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요구하자 바로는 오히려 백성의 노역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37~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지만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태어났으며, 성장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안에서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영의 마음을 이루면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살펴봄으로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해 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바란다.

01 사람의 세 가지 마음

로마서 7장 21~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곧 명백한 진리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의 법’이 있다. 이 내 마음의 법이란 스스로 만들어 낸 마음 곧 양심을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는데,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곧 원수 마귀로부터 심겨진 마음이다.

진리의 마음 곧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곧 비진리의 마음이 양심마저도 눌러 이기며 죄악을 범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 곧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 비진리를 행할 때는 주 안에서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성 속에 있는 비진리도 발견해 버려야 한다. 따라서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 버릴 뿐 아니라 양심의 악과 본성 속의 비진리까지도 발견해 버려야 한다. 이처럼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영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넓은 마음을 소유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02 본성 속의 비진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령 아담의 마음에는 진리의 지식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후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게 됐다. 이때부터 아담의 근본 재료인 흙(창 2:7)의 성질이 적용돼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영의 지식으로만 채워져 있던 생령 아담의 마음이 욕도와 같이 기름지고 부드러운 본성을 갖고 있었다면, 범죄한 아담의 마음은 점차 독하고 악한 성분들이 첨가돼 변질된 본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속에서 마음에 악이 들어오는 만큼 그 본성이 변질될 수 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성질, 간사하고 교활하며 포악한 성질, 거저되고 핑계 대며 변명하는 성질, 교만하고 무례한 성질 등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 발이 악하게 변질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의 본성은 ‘기’를 통해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데 ‘사람의 기’ 속에는 외모는 물론 체질

이나 지능, 성격, 심지어 버릇까지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타고난 마음 발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성장하면서 어떤 것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서 마음 발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마음에 받아들이는 만큼 본성이 악해지는 것처럼 본성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바탕 위에 후천적으로 입력되는 성분들이 더해지기에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본성’이란 토질과 같은 것으로서 부모의 기를 통해 전해질 뿐만 아니라, 태어난 후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숙한 곳에 형성되어진 마음이다. 그러다 보니 본성 속의 비진리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 마치 물을 가만히 두었을 때는 깨끗해 보였도, 물을 휘저으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가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읍이나 다윗처럼 의로운 사람들이라 해도 연단을 받아 본성 속의 비진리를 발견해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03 양심의 악

‘양심’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이것이 선이다, 혹은 악이다’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마음이다. 그런데 양심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본성 속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다. 따라서 양심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적질이 선이나 악이나 하고 묻는다면 대부분 악한 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 이것이 도적질이나 아니냐고 할 때는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바늘 하나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가 하면, 소를 훔친 것도 아닌데 그것이 무슨 도적질이나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양심의 판단 가치 기준이 다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대와 지역에 따라 양심의 기준이 많이 달라진다. 한 예로, 누구나 부모

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양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공경하는 방법이 각기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양심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선과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 누구든지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만큼 점차 양심도 악하게 몰들어서 악한 것을 보아도 악한 줄을 모르게 된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마음에 심는 만큼 양심이 선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의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 버리고, 양심의 악과 본성 속의 비진리까지도 발견해 버려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신속히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영의 마음을 이루며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란다.

<p>2015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p> <p>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2월8일~2월14일</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을 청량하시니 23-24 ▶ 전도 2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 일곱 영 1 ▶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 ▶ 나의 믿음은 ▶ 마음발을 개간하자 6-7 ▶ 천국 46-50 ▶ 위로부터 난 지혜 9 ▶ 죄의 뿌리와 성결 1-2 ▶ 요한계시록 강해 57 ▶ 요한일서 강해 1-3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 ▶ 헛되고 헛되니 1-3 	<p>GCN TV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2 [이수진 목사] ▶ 선을 닦아가는 방법 [이미영 목사] ▶ 이 사랑 잊지 말기를 2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28 [이희선 목사] ▶ 읍기 강해 8 / 생명수 20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7 / MIS 강의 28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5 [김수정 목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곱달공 어여쁜 울동 4 ▶ 몽도 튠튼 마음도 튠튼 19 ▶ English 11 ▶ 플로리스트 12 ▶ 옛날 옛적에 5 ▶ 창조와 과학 4 ▶ 흥겨운 소리 8 ▶ 만민 지킴이 7 ▶ 모두 드려요 22 ▶ 내 마음의 찬양 6 ▶ 즐거운 요리 24 ▶ 뷰티풀 라이프 7 	<p>해외성회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상 25 ▶ 독일 연합대성회 3 ▶ 2014 만민 하계수련회 교육 1-2 <p>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p>
---	--	---	---	--



“15년 만에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안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신청금 성도 (40세, 2대대 14교구)



▲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자신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신청금 성도와 아버지 신정호 집사, 어머니 최복순 집사.

저는 15세 때부터 우리 교회에 다니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콧속에 있던 흑이 사라지는 체험도 했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았습니다. 스키 타는 것과 여행을 좋아해 주일을 거르는 날이 많았지요. 결국 2000년에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제 마음대로 살았더니 몸과 마음은 병들고 제 인생은 꼬여만 갔지요. 잠을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거나 가위에 눌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성경을 제 머리맡에 놓아 주셨고 저는 이내 평안함을 얻곤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자궁근종이 자궁내막 암으로 발전해 수술했고,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사기도 당했습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도 참된 위안과 행복이 없으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의지하며 살았지요. 부모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늘 교회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지쳐가다 보니 교회에 다니던 시절이 떠오르며 그때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최복순 집사님의 변화는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강하시고 거칠던 어머니가 변화돼 제가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것도, 제가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담은 것도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울며 제게 회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와 제게 존댓말을 하시며 몰라보게 달라지셨지요. 그러자 주 안에서 평안한 부모님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작년 10월 12일,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 주일에 저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단단히 굳어 있던 제가, 부모님에게 교회에 관한 말은 꺼내지도 못하게 하던 제가, 어느 순간에 이처럼 녹아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지 제 자신이 신

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떠난 양떼가 다시 돌아오도록 눈물로 간구하신 당회장님의 사랑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저는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듣지 못한 당회장님의 설교를 휴대폰에 다운로드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비롯해 ‘요한계시록 강해’, ‘창세기 강해’ 등 낱말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으리라.’ 결단했지요.

또한 당회장님께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신 해외 연합대성회를 다룬 GCN 방송 프로그램 ‘회상’은 감동 자체였습니다. 1990년대 제가 교회에 다닐 때 당회장님께서 항상 세계 선교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그대로 실현된 것에 감동됐지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만민의 양떼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너무 힘들고 아프게 살았는데, 다시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참 행복을 알게 해 주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생활과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마리사 베레스 성도 (47세, 콜롬비아만민교회)

남편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 궁금했지만 어디에서도 이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갈급해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교회와 목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엔라쎬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사)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감동을 받은 저희 부부는 이재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만민중앙교회의 지교회인 콜롬비아만민교회를 찾아 2013년 8월에 등록했습니다.

과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설교 말씀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상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권능이 나타나 성도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장정연 담임목사님은 자상하고 섬세하게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2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만민전(全) 지교회 총지도교사인 이희선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레르기성 축농증과 자궁근종으로 인한 생리통과 과다출혈, 하복부 부종으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은사집회 시 이희선 목사님은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선형의 뭔가가 제 아랫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모든 증상이 사라지고 치료받았지요.

아울러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기운이 없고 자주 아프며 연약했는데 콜롬비아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호전됐고, 이희선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후에는 더 활기차고 밝아지며 다정해졌습니다. 정기검진 외에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됐지요.

이제 저희 가족은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마리사 베레스 성도가 남편 베드로 로하스 성도와 함께 정담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동명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6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지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상북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구리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